서점가에 불교 열풍…MZ 사로잡다

'힙'해진 불교, 2030 사이서 인기
불교 · 명상 관련 도서 판매 급증
'반야심경' 2030 베스트셀러 1위
소요서가 불교철학 강의 개설까지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불교가 MZ의 마음을 사로잡자 서점에도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불교의 핵심을 압축한 반야심경은 올해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뉴진 스님, 나는 절로 등 불교가 참신한 변신을 통해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자, 서점가에도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8월 27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특히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260자로 함축한 '반야심경'의 인기 역시 예사롭지 않다. 올여름(6월 1일~8월 20일) 2030 세대의 '반야심경' 관련서 구매량은 지난해보다 31.9% 증가했다. 반야심경을 대중의 눈높이로 풀어낸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올해 관련 도서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젊은 세대 내 인기를 입증했다.

문학에서도 불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세계적 문호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첫 출간 후 약 20년 만에 역주행했다. 올해 주요 출판사(민음사, 문학동네,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 〈싯다르타〉 구매자 중 2030 독자 비율은 무려 45.9%에 달한다. 〈싯다르타〉는 부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 '싯다르타'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종교적 성장소설이다.

스님들의 따뜻하고 간결한 에세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충분했다. 2030 세대의 구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47.1% 급증하며 법정 스님의 강연록 〈진짜 나를 찾아라〉와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가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잠깐의 집중으로 번뇌를 해소하는 '명상' 관련서도 주목받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곽정은 작가의 〈마음 해방〉이 2030 세대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전년 대비 43.5% 판매가 증가했다.

2030의 불교 사랑은 불교철학 강의로 이어졌다. 국내 최초 철학전문서점 '소요서가'(대표 윤상원)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소요서가에서 초기불교, 중관학파, 유식불교, 불교논리학 등 불교 내 다양한 지적 전통을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는 불교철학 강의를 개설한다. 이번 강의는 불교에 관심이 높아진 청년층에게 불교철학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는 △불교의 출발점에서 묻는 불교(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유식불교의 이해: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비어있음의 세계관: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을 찾아서(함형석 전남대 교수) △믿음에서 지식으로, 깨달음에서 논증으로: 불교의 논리학-인식론 전통(손영산 서울대 강사)로 진행된다. 회차마다 서울 소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사찰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54명 청년 불자, 상월결사 정신 이어 '전법·포교' 다짐

8월 24일, 상월청년회 6기 출범
봉선사 청풍루에서 입재식 봉행
호산 스님 "청년 포교의 구심점"



상월청년회 6기 회원들은 입재식에서 '청년불자 전법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전법·포교의 길에 앞장설 54명의 청년 불자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는 8월 24일 경내 청풍루에서 상월청년회 6기 입재식을 봉행했다.

상월청년회는 비불자 청년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겠다는 원력으로 2021년 3월 출범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매주 법회에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다채로운 불교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다. 이번 상월청년회 6기에는 기존 회원 38명에 신규 회원 16명을 포함해 총 54명의 청년 불자가 함께한다. 이들은 매달 세 번째주 일요일 봉선사 청년연합법회와 교리법회, 상월문화법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구자희 상월청년회 6기 총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상월청년회는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큰스님의 전법에 대한 원력과 상월결사 이사장이신 호산 스님의 청년 불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설립된 청년 불자 단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명의 청년 불자라도 더 전법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청년회가 결성된 배경을 소개했다. 호산 스님에 따르면 2019년 아홉 스님이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정진을 마친 후, 2020년 아홉 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국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이재준 씨가 호산 스님을 찾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그에게 상월결사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스님은 몇몇 학생들을 모아 2박 3일간 수국사 경내에 텐트를 치고 묵언하며 정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상월청년회 1기가 탄생했고, 이재준 씨는 회장을 맡았다.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모두를 아우르는 청년·대학생 포교의 구심점"이라며 "불교활동에 적극 참여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동시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가 상월결사 차원으로 조직화 돼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전법의 중심이 되는 청년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직접 발로 뛰며 신규 회원을 모집한 박준형 상월청년회 6기 회장은 "불교를 어려워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를 활용해 친근하게 다가갔다"며 "6기로 활동하는 6개월 간 불교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 선사 경전 번역 불사 의미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제20회 계절발표회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묘공당 대행 선사가 '뜻으로 번역'한 불교 경전들의 특징과 의미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법보(法寶)의 일체중생 불성설과 혜소(慧沼)의 반박에 대한 연구'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을 각각 발표한다.

김치온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보(627~705) 스님과 '중생마다 종성이 다르다'는 혜소(651~714) 스님의 논쟁을 소개한다. 최원섭 연구원은 대행 선사가 뜻으로 번역하여 한마음선원에서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뜻으로 푼 〈화엄경〉' 간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회의 좌장은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여섯 번째로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이 대구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한다.

한편, 대행 선사의 한마음 생활참선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매년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8월 23일 울산시청 앞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불교환경연대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8월 21~23일 3일간 진행한 '전국 임원·활동가 워크숍' 마지막 날인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류에 의한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을 목도에 둔 지금 반성 없는 자연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연대의 주장이다.

환경연대는 "환경 현안에 역행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생명다양성과 산사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사업"이라며 "경제성을 이유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케이블카 사업은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신불산 일대는 많은 멸종위기 보호종이 서식하며 산사태 위험 1등급지가 분포돼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41개의 관광 케이블카는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개통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첫해 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끝으로 환경연대는 "부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에게 환경 개발로 인한 후회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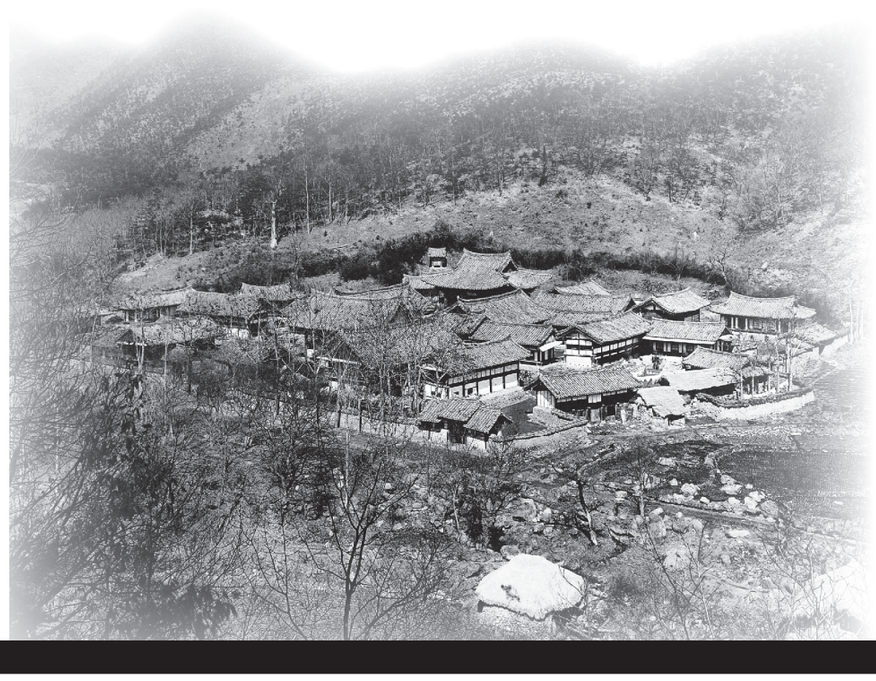
한편, 워크숍은 입재식 이후 △갓바위부처님 참배 △전국운영위 △따라 배우기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탐방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회향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가령 기자

창건 1215주년 은해사 개산대재 기념 영천·경산 승병·의병 추모다례재

조선 1592년 壬辰倭亂 慶北聯合義兵部隊 倡義精勇軍

대한불교조계종 銀海寺 僧義軍 추모다례재



초 대 합 니 다

- 일시 : 2024년 9월 7일 (토) 9시 30분
- 행사장소 : 은해사 특별무대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